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만주어 첨사 *dere*의 추론 증거성 표지로서의 특성*

도 정 업**

[초 록]

본 연구는 만주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첨사 *dere*가 실현되는 조건이 언어 유형론적으로 추론 증거성이 보이는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dere*가 추론 증거성 표지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주어에서 *dere*가 2인칭이나 3인칭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간접 증거성 체계를 가진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1인칭 주어 제약에 부합한다. 그리고 1인칭 주어가 비의도성, 비통제성, 비자발성을 보이는 경우 간접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서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1인칭 효과’가 만주어의 *dere*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에서는 추측 표현에 쓰이는 표지가 의도성, 통제성, 자발성을 지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330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어: 만주어, 추측, 추론, 증거성, 주어 제약, 1인칭 효과, 의지
Manchu, Conjecture, Inference, Evidentiality, *dere*, Subject Restriction, First Person Effect, Intention

때 의지의 의미를 보인다. *dere*도 의도성, 통제성, 자발성을 지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경우에 의지의 의미를 보인다. 결국 *dere*는 추론 증거성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론 증거성 표지라고 할 수 있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만주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첨사 *dere*가 실현되는 조건이 언어 유형론적으로 추론 증거성이 보이는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dere*가 추론 증거성 표지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주어에서 첨사 *dere*가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¹⁾

(1) 가.	suweni	gene-he-ngge	ahūn	gene-re
	2.PL.GEN	go-PST.PTCP-NMLZ	elder_brother	go-NPST.PTCP
	jakade	te-ci	tokto-rakū,	
	because_of	sit-COND.CVB	be_settled-NPST.PTCP.NEG	
	beye-i	teile	gene-hebi	dere , (聰25:10b)
	body-GEN	only	go-NPST.PRF	PTL
	너희가 간 것은 형이 가기 때문에 살아도 불안하여 몸만			
	갔을 것이다.			
나.	niohušun	uji-he-ngge	suweni	ama
	be_naked	raise-PST.PTCP-NMLZ	2.PL.GEN	father
	eme	dere , (聰57:20b)		
	mother	PTL		

1) 본 연구의 자료인 『滿文老檔』은 天命편 81책, 天聰편 61책, 崇德편 3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상 天命편은 命으로, 天聰편은 聰으로, 崇德편은 崇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聰32:7a는 天聰편의 32책 7a쪽을 나타낸다.

알몸을 보살핀 것은 너희 부모일 것이다.

그런데 *dere*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 추측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2) 가. erdemu be tuwa-me amban
 talert ACC watch-SIMCVB high_official
ara-ki *dere*, (命4:23a)
 make-OPT PTL
 재능을 보아 대인으로 삼겠다.
- 나. meni jecen be, be **dasa-mbi**
 1.PL.GEN(EXCL) border ACC 1.PL.NOM(EXCL) rule-NPST
dere, (聰2:18b)
 PTL
 우리의 경계는 우리가 다스리겠다.

박은용(1969)과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등은 (2)와 같은 문장에서 *dere*에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의 예문들은 공통적으로 1인칭 주어를 가지며 추측이 아닌 의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에서 추론 증거성 표지 ‘-겠-’과 ‘-(으)ㄹ 것이-’가 1인칭 주어와 함께 나타날 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3) 가. 내가 잡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집에 도착했-겠-을 것이-다.
 나. 지금쯤 동생이 시험을 보고 있-겠-을 것이-다.
- (4) 가. 내가 너희 집에 꼭 들르-겠-ㄹ 것이-다.
 나. 나는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겠-ㄹ 것이-다.

언어 유형론적으로 추론 증거성을 포함한 간접 증거성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존재한다. 그에 더하여 한국어에서 ‘-겠-’이나 ‘-(으)ㄴ 것이-’가 1인칭 주어와 함께 나타날 때 추측이 아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추론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나타날 때 추측이 아닌 의지의 의미로 쓰이는 언어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첨사 *dere*가 실현되는 양상을 다른 언어의 추론 증거성이 실현되는 양상과 대조함으로써 첨사 *dere*가 추론 증거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인 『滿文老檔』을 간단히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滿文老檔』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공시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언어 유형론적 보편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주어 자료 역시 일정 시대의 공시적 자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滿文老檔』은 1778년에 간행되었으며, 총 394,287어절로 구성되었다. 간행 시기는 18세기 후반이지만, 1607년부터 1636년간의 사건을 기록한 『滿文原檔』을 증초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만주어 자료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7세기 초반의 만주어의 특징을 보여준다.²⁾ 본 연구에서 이용한 『滿文老檔』은 遼寧民族出版社에서 2009년에 영인한 『內閣藏本滿文老檔』이며,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³⁾

(5) 『滿文老檔』의 서지

26函 180冊(太祖朝 10函 81冊, 太宗朝 16函 99冊)

-
- 2) 『滿文老檔』에서 『滿文老檔』으로의 내용 변경은 김주원·이형미(2017)를 참조할 수 있다.
- 3) 본 연구에서 이용한 『滿文老檔』 내각장본은 다른 판본의 원본으로서 당시의 만주어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滿文老檔』의 여러 판본과 판본에 나타난 여러 차이에 대해서는 최계영·김주원(2019)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滿文老檔』內閣藏本 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四周雙邊, 白口, 單魚尾, 無行格, 半葉 7行
28.5 cm × 18.3 cm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증거성 체계 내에서 추론 증거성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3장은 추론 증거성이 보이는 보편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4장은 *dere*가 쓰인 만주어 문장의 분포와 유형이 추론 증거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5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2. 증거성 체계 내에서의 추론 증거성의 위치

증거성(evidentiality)은 정보 획득의 방법을 명시하거나, 정보의 출처(source of information)를 나타내는 의미범주이며, 이것이 문법적으로 표현되게 되면 문법범주로서 지칭된다. 증거성이 정보의 출처를 주의미로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분류 기준과 체계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성은 크게 직접(direct/firsthand) 증거성과 간접(indirect/non-firsthand) 증거성으로 나누고 추론 증거성은 간접 증거성에 포함된다. 증거성의 분류로는 Willett (1988), Plungian (2001, 2010), Aikhenvald (2004)의 분류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⁴⁾

(6) Willett (1988, p. 57)의 증거성 분류
Direct - Attested - Visual

4) 각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송재목(2018, pp. 106-109)을 참조할 수 있다. 증거성과 관련한 용어의 한국어 번역은 송재목(2018)을 따른다.

- Auditory
- Other sensory
- Indirect - Reported
 - Second-hand
 - Third-hand
 - Folklore
- Inferring
 - Result
 - Reasoning

(7) Plungian (2001, p. 353)의 증거성 분류

- Direct evidence
 - Visual
 - Non-visual
 - Sensoric
 - Endophoric
- Indirect evidence
 - Inference
 - Synchronic
 - Retrospective
 - Reasoning

(8) Aikhenvald (2004, p. 65)의 증거성 분류

- Firsthand
 - Visual
 - Non-visual/Sensory
- Non-firsthand
 - Inferred
 - Inference
 - Assumption
 - Reported
 - Hearsay
 - Quotative

(9) Plungian (2010, p. 37)의 증거성 분류

- Direct/Personal
 - Participatory/Endophoric
 - Visual
 - Non-visual/Sensory
- Indirect/Personal
 - Inferential
 - Presumptive
- Indirect/Non-personal
 - Reported

Willett (1988)은 38개 언어를 조사하여 유형론적으로 증거성 범주를 분류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간접 증거성의 하위 개념으로서 보고(reported) 증거성과 추론(inferring) 증거성을 설정하였는데, 추론 증거성은 다시 결과(results)와 추리(reasoning)로 나누었다. 결과는 관찰 가능한 증거에 기반한 추론이고, 추리는 단순히 화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기반한 추론이다.

용어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Willett (1988)의 추론 증거성은 Plungian (2001)과 Aikhenvald (2004)에도 유사하게 반영된다. Plungian (2001)은 간접 증거성의 하위 범주로서 추론(inference)과 추리(reasoning)로 구분하였고, Aikhenvald (2004)는 간접 증거성의 하위 범주로 추론(inferred) 증거성과 보고(reported) 증거성을 설정한 후, 추론 증거성을 추론(inference)과 추정(assumption)으로 구별하였다. Plungian (2001)이 Willett (1988)이나 Aikhenvald (2004)와 다른 점은 증거가 보이는 시간의 속성에 따라서 추론을 공시적(synchronic) 추론과 회상적(retrospective) 추론으로 나눈 점이다. 그런데 Plungian (2010)에서는 추론의 하위 분류를 없애고 개인적인 간접 증거성을 추론(inferential)과 추정(presumptive)으로 나누고, 비개인적인 간접 증거성을 보고(reported)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론과 추정의 분류는 Willett (1988)의 결과(results)와 추리(reasoning), Aikhenvald (2004)의 추론(inference)과 추정(assumption)에 대응하는 것이다.

각 연구에서의 분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간접 증거성의 하위 범주는 추론 증거성과 보고 증거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추론 증거성의 하위 범주로서 제시되는 용어들은 시각과 같은 직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에 근거하였는지, 아니면 그 외의 정보에 근거하였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직간접적인 정보에 기반한 추론에 기반한 추론 증거성은 보고 증거성과 더불어 간접 증거성 체계에서 핵심적인 범주라

고 할 수 있다.

3. 추론 증거성의 언어유형론적인 특성

3.1. 추측 표현에서의 인식 양태와 간접 증거성

여러 선행 연구에서 추측 표현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나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인도유럽언어의 경우에는 인식 양태의 중심 개념인 확실성, 개연성 등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추측 표현의 구분이 가능하다. 단계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 양태는 ‘발화 내용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증거성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10)은 영어의 예이고, (11)은 독일어의 예이며, (12)는 스페인어의 예이다.⁵⁾

(10) 가. John **may** be in his office.

나. John **must** be in his office.

(11) 가. Emil **kann** glücklich sein.

Emil can.3SG happy be

Emil may be happy.

나. Emil **muss** glücklich sein.

Emil must.3SG happy be

Emil must be happy.

(12) 가. Juan **puede** venir.

Juan may.3SG come.INF

5) 예문은 송경안·이기갑 외(2008)에서 발췌하여 제시한다.

Juan may come.			
나. Juan debe	de	venir.	
Juan must.3SG	of	come.INF	
Juan must come.			

의미상으로 본다면 추론 증거성과 인식 양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인식 양태가 확실성과 개연성 등 확신의 정도를 중심 개념으로 하고, 증거성이 정보의 출처를 중심 개념으로 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만, 추론 증거성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이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 증거성에서 발견되는 1인칭 주어 제약과 1인칭 효과는 인식 양태에서의 추측 표현과 간접 증거성의 추측 표현을 구분하여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2. 간접 증거성의 1인칭 주어 제약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성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있다. 남비쿠아라(Nambiquara)어는 관찰(observation), 추측(deduction), 서술(narration) 등 세 개의 증거성 표지가 존재하는데, 이중 직접 증거성 표지인 관찰을 제외한 간접 증거성 표지인 추측과 서술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Lowe (1972), pp. 373-374]. 투유카(Tuyuka)어도 간접 증거성 표지인 추론(apparent) 증거성 표지와 추정(assumed) 증거성 표지는 현재 시제에서 1인칭 주어와 나타나지 않는다[Barnes (1984), pp. 260-262].

만주어와 함께 알타이 언어로 분류되는 몽골어에도 간접 증거성 표지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존재한다. 몽골어에서 간접 지식의 -jee는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 [송재목(2007), p. 9].⁶⁾

- (13) 가. Bi ödör-iĭn xool id-ev/-lee/-*jee.
 1.SG.NOM day-Gen meal eat-PST/DK.PST/IK.PST
 나는 점심을 먹었다.
- 나. Bi onngocon-d suu-v/-laa/-*jee.
 1.SG.NOM airplane-DAT sit-PST/DK.PST/IK.PST
 나는 비행기를 탔다.

티베트(Tibetan)어에서 간접 지식을 나타내는 표지 -zag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Sun (1993), pp. 956-957].

- (14) 가. *ŋæ xabda sh'ŋ-zag.
 1.SG.ABS deer-chase.DAT go.COM-IK
 I went deer-hunting.
- 나. tɕ'ekæ xabda sh'ŋ-zag.
 you_and_your_family.ABS deer-chase.DAT go.COM-IK
 You and family went deer-hunting.
- 다. dordze xabda sh'ŋ-zag.
 Rdo-rje.ABS deer-chase.DAT go.COM-IK
 Rdo-rje (personal name) went deer-hunting.

본 연구의 주제인 추측 표현과 관련된 1인칭 주어 제약은 한국어의 ‘-겠-’과 ‘-(으)ㄴ 것이-’에서 잘 드러난다.7) 한국어의 ‘-겠-’이 보이는 인칭 제약을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송재목(2007)이 있다. 송재목

6) 형태소 주석(gloss)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약어와 다른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약어로 수정하여 제시한다.

7) 두 형태가 모두 추측 표현에 쓰이지만 ‘-겠-’과 ‘-(으)ㄴ 것이-’의 정보의 출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2011, p. 18)에서는 ‘-겠-’과 ‘-(으)ㄴ 것이-’가 추측이나 추량을 나타내며, 감각경험을 통해 얻어진 근거에 기반하여 추측하는 경우에는 ‘-겠-’이 선호되고, 일반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추측할 때에는 ‘-(으)ㄴ 것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007)에서는 증거성을 표현하는 문법범주와 주어 인칭 제약 사이의 관계를 유형론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어에서 간접적인 지식(추정)을 나타내는 ‘-겠-’이 주로 2인칭 주어,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며 1인칭 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⁸⁾ 다음은 송재목(2007, p. 6)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 (15) 가. 그는/너(는) 어제 무척 바빴**겠다**.
- 나. 그는/너(는) 지금 아침(을) 먹고 있**겠다**.
- 다. 그는/너(는) 다음주부터 학교에 가**겠다**.

박주연(2016)은 ‘-겠-’과 더불어 ‘-(으)ㄴ 것이-’에서 나타나는 주어 제약 현상을 지적하였다. 박주연(2016, p. 56)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이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 부자연스럽거나 추측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 (16) 가. 그 애가 학교에 있**겠다**.
- 나. 내가 학교에 있**겠다**.
- 다. 그 애가 사과를 깎을 것**이다**.
- 라. 내가 사과를 깎을 것**이다**.

중국어의 추측 표현에서도 1인칭 주어 제약이 존재한다. 중국어에서 추측 표현에 쓰이는 단어는 ‘要, 會’이다. 송아영(2012, p. 44)에서는 ‘要, 會’가 2, 3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추측 의미로 쓰인다고

8)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겠-’은 추측과 의도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진석(1971), 서정수(1977), 성광수(1984), 장경희(1985), 임동훈(2001), 박재연(2004)]. 특히 박재연(2004)은 ‘-겠-’이 추측과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인칭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겠-’과 주어의 인칭 제약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송재목(2007)이므로 한국어의 ‘-겠-’에 대해서는 송재목(2007)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17) 가. 你娶媳婦了這下可要/會高興了吧.
(청자에게)민수 씨 장가가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 明天要/會下雨的.
내일 비가 오겠어요.
다. 那個人也要/會見妻子的吧.
그 사람도 부인을 만나겠지요.

3.3. 간접 증거성의 1인칭 효과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발화할 때 간접 증거성 표지보다는 직접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간접 증거성 표지의 1인칭 주어 제약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한 환경에서 간접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수한 환경이란 발화 내용에 대해서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비자발적으로 일어난 상황과 같은 환경이다. 이러한 현상을 Aikhenvald (2004, p. 219)는 ‘1인칭 효과’(first person effect)라고 하면서 13개 언어에서 나타나는 1인칭 효과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1인칭 효과를 보이는 문장의 예를 몇 가지 검토하여 본다. Aikhenvald (2004, p. 221)는 Dixon (2003, p. 170)에서 제시된 자라와라(Jarawara)어의 예문을 인용하여 1인칭 주어가 직접 증거성 표지인 -hara와 함께 쓰이는 경우와 간접 증거성 표지인 -hani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제시하였다.⁹⁾

9) Aikhenvald (2004, p. 221)와 Dixon (2003, p. 170)은 주석 방식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1인칭 효과를 보이기에 더 적합한 Aikhenvald (2004, p. 221)가 제시한 주석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예문을 제시한다.

- (18) 가. o-hano-**hara** o-ke
1SG.S-be_drunk-IMM.P.FIRSTH.f 1SG.S-DECL.f
I got drunk (deliberately) (FIRSTHAND)
- 나. o-hano-**hani** o-ke
1SG.S-be_drunk-IMM.P.NONFIRSTH.f 1SG-DECL.f
I got drunk (and don't recall it) (NON-FIRSTHAND)

예문 (18)에서 볼 수 있듯이, (18가)와 (18나)는 모두 화자가 술에 취했다는 상황을 기술했지만 화자의 의도 여부에 따라 직접 증거성 표지와 간접 증거성 표지가 결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카기르(Yukaghir)어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간접 증거성 표지 -l'el'이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행위 (inadvertent action)에는 1인칭 주어가 허용된다[Maslova (2003), p. 229].

- (19) 가. met chohojo jonža:-l'el'-d'e
I knife forget-INFR-INTR:1SG
I have forgotten my knife.
- 나. modo-t tajdjet mala-j-l'el-d'e
[sit-SS:IPFV] then sleep-PFV-INFR-INTR:1SG
I was sitting and then somehow fell asleep.

예문 (19)에서 1인칭 화자는 잊어버리거나 잠이 들어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된다. Maslova (2003, p. 229)는 추측 형태 (inferential form)가 보이는 이러한 의미는 1인칭에 한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추측 표현과 관련된 1인칭 주어 효과는 한국어의 '-겠-'과 '-(으)ㄹ 것이-'에서도 드러난다. 송재목(2007, p. 7)에서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어가 자각의

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경우, 즉 1인칭 주어가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상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 경우라고 하였다.

- (20) 가. 잘못하면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
나. 2년이 지나면 나도 선생이 되어**있**겠다.

박주연(2016, pp. 57-58)은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의 추측 표현에 나타나는 주어 제약 현상이 풀리며 추측 표현인 ‘-겠-’과 ‘-(으)ㄴ 것이-’가 1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고 하였다.

- (21) 가. 내가 정신을 잃**겠**다.
나. 나는 옷겨 죽**겠**어.
다. 이번 주말에 나는 바**쁠** 거야.
라. 내가 많이 슬**플** 거야.

중국어에서도 추측 표현이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송아영(2012, p. 44)는 1인칭 주어와 ‘要, 會’가 쓰여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는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要, 會’ 앞에 부사 ‘大概’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였다. 예문을 보면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1인칭 주어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고, ‘아마’라는 의미를 가지 ‘概要’가 쓰인 경우 1인칭 주어의 의도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1인칭 주어와 ‘要, 會’가 쓰여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는 비통제적, 비의도적, 비자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가. 我穿這個**要/會**很漂亮的吧.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쁘**겠지요.

나. 我明天大概**要/會**早走.

나는 내일 아마 일찍 가겠다.

3.4. 간접 증거성에서 보이는 의지의 의미

추론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서 추측이 아닌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겠-’과 ‘-(으)ㄹ 것이-’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재목(2007, p. 6)에서는 ‘-겠-’이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가. 나는 오늘 밤 이 책을 다 읽**겠다**.

나. 내가 꼭 1등을 하**겠다**.

박주연(2016, p. 59)에서는 1인칭 주어가 동작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추측보다는 의지의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24) 가. 내가 이번 출장을 가**겠어**.

나. 내가 그 차에 기름을 넣을 거**야**.

중국어에서 추측 표현에 쓰이는 ‘要, 會’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송아영(2012), p. 44].

(25) 我**要/會**早點去學校.

나는 일찍 학교에 가겠다.

태국어에서도 추측 표현에 쓰이는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서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태국어에서 조동사 *ca*는 기본적으로

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Arjaree (2014, pp. 76-78)에서는 미래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의미로 인하여 *ca*가 인칭과 시제에 상관없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26)은 각 인칭에 따른 추측을 표현하는 예문이다. (27)은 현재 상황, 과거 상황, 미래 상황에 따른 추측을 표현하는 예문이다. Arjaree (2014)는 *ca*가 추측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6) 가. *cʰán kʰoŋ ca mây pay ciin*
 1 may AUX NEG go china
 나는 중국에 안 가겠다.

가'. *cʰán kʰoŋ ca dâay cəə pʰuân*
 1 may AUX ASP see friend
 나는 아마 친구를 만날 거야.

나. *kʰun nâa ca kin pʰèt dâay*
 2 should AUX eat spicy POT
 당신은 매운 것을 먹을 수 있겠다.

다. *mɛ̃ɛ àat ca nɔɔn yùu*
 mother.3 may AUX sleep ASP
 엄마는 자고 있겠다.

(27) 가. *toon-nii sètʰakit tʰii thay mây nâa ca dii*
 now economy at thailand NEG should AUX good
 지금 태국에서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나. *mua-wan-nii kʰun nâa ca yùu tʰii hɔ̃p-samùt ni*
 yesterday 2 should AUX stay at library PP
 어제 너는 도서관에 있었을 것이다.

다. *pʰrùŋ nii aakâat tʰii cʰiapmây nâa ca dii*
 tomorrow weather at Chiangmai should AUX good
 내일 치앙마이에서 날씨가 좋을 거야.

Arjaree (2014, pp. 79-80)에서는 *ca*가 1인칭 주어인 경우에 한하여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는 의도의 의미가 약화되어 화자의 추측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결국 *ca*가 추측으로 쓰일 때 조동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어의 인칭은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아마 내가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와 같이 ‘아마’가 쓰이면 ‘-(으)ㄴ 것이-’가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도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28) 가. *chán ca pay du nǎŋ káp pʰuán*
 1 AUX go look movie with friend
 나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볼 것이다.
- 나. *chán ca tɛŋjaan káp fɛɛn yípun*
 1 AUX marry with boyfriend Japan
 나는 일본인 남자 친구와 결혼할 것이다.

- (29) 가. *kʰaw ca lóm*
 3 AUX fall
 그는 넘어질 거야.
- 나. *kʰaw ca tʰùuk kʰǎŋ kʰúk*
 3 AUX PASS lock prison
 그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Arjaree (2014)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ca*는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결합하여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예문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더라도 1인칭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ca*가 추측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반드시 필요한 주어의 인칭은 1인칭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ca*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서 추

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인칭 주어의 비의도성, 비통제성, 비자발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의지의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터키어의 추측 표현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때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터키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미 **-AcAk**을 통하여 실현된다. 백대열(2017)에서는 미래 예정상 어미인 **-AcAk**은 한국어의 ‘-겠-’과 대응하는 정도의 확실성을 나타내며, 의도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백대열(2017, pp. 23-37)에 제시된 예문을 발췌한 것이다.

(30) 가. **Yarın bir kaza olacak.** [백대열(2017), p. 23]

내일 사고가 날 것이다.

나. **Yarın yamur yağacak.** [백대열(2017), p. 24]

내일 비가 오겠다.

다. **Ben mutlaka seyahat edeceğim.** [백대열(2017), p. 37]

나는 꼭 여행을 할 것이다.

백대열(2017)은 한국어와 터키어의 양태표현을 대조한 연구이기 때문에 간접 증거성 표지가 보이는 1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시프나르 홀리아(2014, p. 50)는 어미 **-AcAk**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인칭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cAk**이 예정상을 나타내지만 사태를 무조건 이루겠다는 화자, 즉 1인칭 주어의 의도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타시프나르 홀리아(2014, p. 49)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31) 가. **Ben o adamın kızıyla evlenmesine karşı çıkacağım.**

나는 우리 딸과 그의 결혼을 반대하겠다.

나. Ben işime sadık olacağım.

나는 직무에 성실하겠다.

전통적으로 추측 표현은 확실성의 정도 문제로 보아서 인식 양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언어 유형론적으로 보았을 때 증거성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경우 추측 표현은 추론이라는 간접 증거성 표지로 실현된다. 추론 증거성 표지는 간접 증거성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성 표지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발화가 비의도적, 비자발적, 비통제적인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1인칭 주어와 공기할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의 경우 추측 표현이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 1인칭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장에서 밝힌 추론 증거성의 특징이 만주어 첨사 *dere*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것이다.

4. 첨사 *dere*가 보이는 추론 증거성적인 특성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만주어의 추측 표현이 첨사 *dere*를 통하여 실현되며 *dere*가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Li (2000), p. 200; 津曲敏郎(2002), p. 68; Gorelova (2002), p. 309; 박상철(2017), pp. 107-109]. 특히 박상철(2017)은 *dere*를 인식 양태와 관련된 첨사로 파악하여 ‘개연성’에 상당하는 양태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은용(1969, pp. 135-136)과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p. 134)에서는 *dere*가 추측의 의미 외에도 강조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박은용(1969)은 청학서에 나타난 강조의 의미를 보이는 *dere*의 용례와 추측의 의미를 보이는 *dere*의 용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2)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다고 본 *dere*의 용례이고, (33)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 *dere*의 용례이다.

- (32) 가. ajige niyalma enduringge han fonji-re weile be
 little person Imperial han ask-NPST.PTCP matter ACC
 sain **jabu-mbi dere** (八歲兒 4a-4b)
 good answer-NPST PTL
 小人이 皇上의 무르시는 일을 잘 **뒤답히리이다**
- 나. amala jobolon be lashala-me tsai yang be
 later sorrow ACC break_off-SIM.CVB tsai yang ACC
 amca-bu-fi **wa-ki dere** (三譯總解 2:4b)
 chase-CAUS-ANT.CVB kill-OPT PTL
 훗 근심을 쓴흐려 **헛면 蔡陽으로 쫓아 죽여지라**
- 다. tsootsoo hendu-me ere majige jaka jiyangjiyūn
 tsootsoo speak-SIM.CVB this a_little thing general
 i amba gung de tumen de emgeri
 GEN big merit DAT ten_thousand DAT once
karula-re-ngge dere (三譯總解 2:13a)
 recompense-NPST.PTCP.NMLZ PTL
 曹操 | 니로되 이 적은 거스로 장군의 큰 공에 만에 **헛**
 번이나 **갑흐려 헛 거시라**
- (33) 가. kungming hendu-me ere emu arga i jiyang g'an
 kungming speak-SIM.CVB this one plot GEN jiyang g'an
 be **holto-ho dere** (三譯總解 4:3a)
 ACC deceit-PST.PTCP PTL
 孔明이 니로되 이 **헛** 쉰 蔣幹을 **소김이라**
- 나. bi simbe tuwa-ci antaha be
 1.SG.NOM 2.SG.ACC watch-COND.CVB guest ACC
 kundule-re doro akū bi

treat_with_respect-NPST.PTCP ritual there_is_not 1.SG.NOM
 aiseme gisure-re damu buce-ci
 why speak-NPST.PTCP only die-COND.CVB

waji-ha *dere* (三譯總解 6:15a)

finish-PST.PTCP PTL

내 너를 보니 손을 디접히는 네 업스니 내 무어시라
 니르료 다만 죽으면 **못츄리라**

다. jeo ioi fonji-me gung feo i dobori
 jeo ioi ask-SIM.CVB gung feo GEN night
 ji-he-ngge urunakū sain arga **bi**
 come-PST.PTCP-NMLZ certainly good plot there_

dere (三譯總解 5:9b)

PTL

周瑜 | 무로되 公覆 | 밤의 온 거시 반드시 도흔 썬 이
시리라

라. jai sunja inenggi o-ho-de **isina-mpi**
 and five day become-PST.PTCP-DAT arrive-NPST

dere (清語老乞大 1:14b)

PTL

또 닷새면 **니들까 호노라**

예문 (3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dere*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측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dere*를 박은용(1969)과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滿文老檔』에서 발견되는 *dere*의 용례 360개를 검토해본 결과, 추측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dere*가 1인칭 주어에 한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dere*가 나타난 용례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滿文老檔』에서 발견되는 첨사 *dere*의 분포

시제	의미	주어			계
		1인칭	2인칭	3인칭	
과거	추측	6	14	50	70
	비추측	-	-	-	0
비과거	추측	15	57	175	247
	비추측	43	-	-	43
계		64	71	225	360

이제 <표 1>에서 분류한 각 항목을 예문을 통하여 더 자세히 검토해보겠다. 전체 용례의 82.2%인 296개 용례에서 2인칭 주어 또는 3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dere*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해당 용례에서는 시제의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dere*는 과거와 비과거의 상황기술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dere*가 주로 2인칭과 3인칭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3장에서 검토한 간접 증거성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4) 가. ba i goro de, ula gurun de
 place GEN far DAT ula country DAT
 dali-bu-fi, suwe ula de
 lock_off-PASS-ANT.CVB 2.PL.NOM ula DAT
 daha-fi **banji-ha** *dere*, (命1:5b)
 obey-ANT.CVB live-PST.PTCP PTL
 땅이 멀고 Ula국에 막혀서, 너희는 Ula에 복종하여 **살았을 것이다.**

나. han, mimbe akda-fi gūni-ci, emu
 han 1.SG.ACC believe-ANT.CVB think-COND.CVB one
 gisun sinde angga-i **jasi-mbihe dere**. (聰32:17a)
 word 2.SG.DAT mouth-GEN post-PST.IPFV PTL

한(汗)이 나를 믿고 생각하면 말 한 마디를 너에게 구두로 보냈을 것이다.

(35) 가. *tuttu o-joro turgun be si*
 like_that become-NPST.PTCP reason ACC 2.SG.NOM
sa-rkū dere, (聰43:10a)
 know-NPST.PTCP.NEG PTL

그렇게 되는 이유를 너는 모르겠지.

나. *ere uba-be abka niyalma inu gemu getuken*
 this this_thing-ACC heaven person also all clear
sa-mbi=dere, (崇8:21b)
 know-NPST=PTL

이러한 것을 하늘과 사람도 모두 분명히 알겠지.

*dere*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경우, 추측을 나타내는 용례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용례가 모두 발견된다. 그러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와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모두 제한된 조건에서 나타난다.

먼저 1인칭 주어와 *dere*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를 검토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용례들은 전체 용례의 5.8%에 해당하는 21개의 용례에서 발견된다. 용례의 수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장들은 2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가 쓰인 문장처럼 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1인칭이 주어인 문장에 *dere*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3가지 문장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조건문이 선행하는 문장이고, 둘째는 의문문을 포함한 병렬 구성이며, 셋째는 인용문이다.¹⁰⁾

10) 인용문에 해당하는 용례는 2개가 발견되었으나 *bi cananggi*의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bi cananggi*가 나타난 용례 1개만 제시한다.

(36) 가. jai aika waka bi-ci, ama
 again any wrong there_is-COND.CVB father
 hendu-ci sa-mbi dere, (命58:19b)
 speak-COND.CVB know-NPST PTL
 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가 말하면 (제가) **알 것입
 니다.**

나. juwe gurun sain banji-ki se-ci, ishunde
 two country good live-OPT say-COND.CVB mutually
 gungne-me bene-me yabu-mbi
 show_respect_to-SIM.CVB send-SIM.CVB go-NPST
dere, (命27:11a)
PTL
 (우리) 두 나라가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고 하면, 서로 공
 경하며 보내며 **왕래해야 하겠지요.**

(37) 가. suwembe umesi ili-re karun de
 2.PL.ACC very stand-NPST.PTCP outpost_sentry DAT
 naka-kini se-he dere, emgeri emgeri
 stop-OPT say-PST.PTCP PTL once once
 helen jafa-ra be
 enemy_captive_who_gives_information grasp-NPST.PTCP ACC
 geli naka se-hebi=o, (聰41:3b)
 also stop.IMP say-NPST.PRF=Q
 (내가) 너희를 많이 서는 초소에서 그만두라고 **했겠지,**
 한 번씩 정보제공포로를 잡는 것도 그만두라고 **했는가.**

나. damu han de gele-mbi dere, tere-ci
 only han DAT fear-NPST PTL that-ABL
 gūwa de gele-he doro bi=o, (崇17:21a)
 other DAT fear-PST.PTCP rule there_is=Q
 (내가) 오직 한(汗)을 **두려워하겠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있습니까.

(38) bi cananggi han i hecen de ninggun
 1.SG.NOM previously han GEN castle DAT six
 jergi bithe bene-me aca-ki se-ci,
 time letter send-SIM.CVB be_in_harmony-OPT say-COND.CVB
 ainci hecen i fejile gashū-re be girucun
 perhaps castle GEN under swear-NPST.PTCP ACC shame
 ara-ŋi, jai mimbe hūdun **bedere-mbi** **dere**
 make-ANT.CVB again 1.SG.ACC quick return-NPST PTL
 seme karu jabu-hakū, (聰24:6a)
 COMP return_letter answer-PST.PTCP.NEG

(명황제가) 내가 전에 황제의 성에 여섯 번 글을 보내어 화친
 하자고 해도, 아마도 성의 아래에서 맹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내가 속히 돌아오겠지 하며 답하지 않았다.

(36)은 조건문이 선행할 때 1인칭 주어와 *dere*가 함께 쓰여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 용례들에서 선행하는 조건문에 이어 나타날 수 있는 행위를 서술하기 때문에 1인칭 주어는 의도성이나 자발성을 보이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37)은 의문문에 선행하는 문장은 의문문에 나온 의미와 상반되는 내용을 가정하여 서술한 것이다. 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는 의도성이나 통제성, 자발성을 보이지 않는다. (38)은 1인칭 주어와 *dere*가 함께 쓰였지만 인용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문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1인칭 주어는 의도성이나 통제성, 자발성을 보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1인칭 주어와 *dere*가 함께 쓰여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Aikhenvald (2004)에서 지적된 ‘1인칭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dere*는 문장의 시제가 비과거인 경우에만 발견된다. 이러한 유형의 용례는 전체 용례에서 14.3%인 43개 용례에서 나타나며, 1인칭 주어를 가진 문장으로 한정하여 보면 67%에 해당한

다. 추측을 나타내지 않는 *dere*는 *-mbi dere*, *-ki dere*, *-re dere*, *-ki sembi dere*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네 가지 형태에서 *-mbi*, *-ki*, *-re*, *-ki sembi*는 모두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다. 박은용(1969)에서 제시한 강조의 의미를 보이는 *dere*의 예문들도 모두 *-mbi*, *-ki*, *-re*의 뒤에 나타난다.

- (39) 가. hoton i niyalma afa-ki, gese haha kai,
 castle GEN person fight-OPT same man PTL
 mende gala bi=kai, afa-fi gese
 1.PL.DAT(EXCL) arm there_is=PTL fight-ANT.CVB same
buce-mbi dere seme hendu-me
 die-NPST PTL COMP speak-SIM.CVB
 daha-rakū o-ho manggi, (命12:3a)
 surrender-NPST.PTCP.NEG become-PST.PTCP after
 성의 사람이 “싸우자. 똑같은 사내이다. 우리에게 팔이 있
 다. 싸우고 같이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며 항복하지 않자.
 나. suweni ji-he be gūni-me etu-re
 2.PL.GEN come-PST.PTCP ACC think-SIM.CVB wear-NPST.PTCP
 je-tere be **gosi-mbi dere**, (命40:15a)
 eat-NPST.PTCP ACC have_mercy-NPST PTL
 너희가 온 것을 생각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베**플겠다.

- (40) 가. mujilen onco tondo be tuwa-me tukiye-ki
 mind broad upright ACC look-SIM.CVB assign-OPT
dere, (命4:23a)
 PTL
 마음이 넓고 올곧은 것을 보아 **등용**하겠다.

- 나. mini non i jui duici beile emu
 1.SG.GEN younger_sister GEN son fourth beile one

gisun be donji-fi **ebu-ki** *dere* seme
 word ACC listen-ANT.CVb dismount-OPT PTL COMP
 hendu-he manggi, (命12:8b)
 speak-PST.PTCP after
 “내 여동생의 아들 제4버일러의 한마디 말을 듣고 **내려**
가겠다”라고 말하니

(41) suwe bahana-rakū-ci, minde
 2.PL.NOM be_able-NPST.PTCP.NEG.become-COND.CVB 1.SG.DAT
 aifini ainu alanji-hakū, bi
 much_earlier why report-PST.PTCP.NEG 1.SG.NOM
daifura-bu-re *dere*, (聽40:7b)
 treat-CAUS-NPST.PTCP PTL
 너희가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일찍 어찌 알리지 않았는가. 내가
 치료하게 할 것이다.

(42) 가. bi uhereme doro-i jalin de
 1.SG.NOM altogether doctrine-GEN in_order_to DAT
kice-ki **se-mbi** *dere*, (聽52:12b)
 stribe-OPT say-NPST PTL
 나는 모두 도리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
 나. bi irgen i jobo-ro jalin
 1.SG.NOM common_people GEN suffer-NPST.PTCP because_of
 de **aca-ki** **se-mbi** *dere*, (崇4:6a)
 DAT be_in_harmony-OPT say-NPST PTL
 내가 백성의 괴로움 때문에 **화친하고자 한다.**

(39)부터 (42)에서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ere*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dere*의 앞에 등장하는 -mbi, -ki, -re, -ki

*sembi*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시된 예문은 모두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앞선 검토한 바 있는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때 해당 표지가 그 자체로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dere*가 보이는 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dere*는 문말 첨사이기 때문에 동사 어간에 바로 연결될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만주어에서는 동사 어간에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미가 붙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주어에서는 특수하게 의지의 의미를 보이는 *dere*가 *-mbi*, *-ki*, *-re*, *-ki sembi*와 공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dere*와 1인칭 주어가 함께 쓰여서 의지를 보이는 현상은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만주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첨사 *dere*가 실현되는 조건이 언어 유형론적으로 추론 증거성이 보이는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dere*가 추론 증거성 표지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첨사 *dere*가 2인칭과 3인칭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간접 증거성 체계를 가진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1인칭 주어 제약에 부합한다. 그리고 1인칭 주어가 비의도성, 비통제성, 비자발성을 보이는 경우 간접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면서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1인칭 효과’가 만주어의 *dere*에도 적용된다.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에서는 추측 표현에 쓰이는 표지가 의도성, 통제성, 자발성을 지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때 의지의 의미를 보인다. *dere*도 의도성, 통제성, 자발성을 지닌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경우에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터키어의 추측 표지와

같이 의지의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re*는 추론 증거성을 포함한 간접 증거성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추론 증거성 표지를 지니거나 그에 상응하는 표지를 지닌 언어들처럼 1인칭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에 쓰이므로 추론 증거성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 저】

- 김주원·이형미(2017), 『『滿文原檔』에서 『滿文老檔』으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74권 3호.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서울: 과학사.
-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용(1969), 『滿洲語文語研究(一)』, 대구: 螢雪出版社.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연(2016), 「한국어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 증거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11),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 백대열(2017), 「한국어와 터키어의 양태 표현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77), 「‘겠’에 관하여」, 『말』 2.
-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184.
- 송경안·이기갑 외(2008), 『언어유형론 3』,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송아영(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표현 대조 연구 — ‘-겠-, -(으)ㄹ 것이다, -가/나 보다, -ㄴ/는/ㄹ 것 같다’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목(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 (1).
- 송재목(2018), 「한국어의 어휘적 증거성」, 『언어학』 82.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최계영·김주원(2019), 「『滿文老檔』 한·일 번역본의 표기와 번역 차이: 저본으로 인한 차이를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29호.
- 타시프나르 홀리아(2014), 「한국어와 터키어의 시간 관련 문법범주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jaree, Chuengprempree (2014), 「한·태 미래 표지에 대한 대조 연구 — ‘-겠-’, ‘-(으)르 것이-’, 꺾 ‘ca’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 河內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校學術出版會.
- Aikhenvald, Alexandr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nes, Janet (1984), “Evidentials in the Tuyuca Verb”,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50.
- Dixon, Robert M. W. (2003), Evidentiality in Jarawara, In Aikhenvald and Dixon (eds.), *Studies in Evidentialit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orelova, Liliya M.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 Li, Gertraude Roth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owe, Ivan (1972), “On the Relation of Formal to Sememic Matrices with Illustrations from Nambiquara”, *Foundations of Language* 8.
- Maslova, Elena S. (2003), “Evidentiality in Yukaghir”, In Aikhenvald and Dixon (eds.), *Studies in Evidentialit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lungian, Vladimir A. (2001),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 Plungian, Vladimir A. (2010), “Types of Verbal Evidentiality Marking: An Overview”,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Berlin: de Gruyter.
- Sun, Jackson T.-S. (1993), “Evidentials in Amdo Tibetan”,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LXIII Part IV, Taipei: Academia Sinica.
- Willett, Thomas (1988),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1).

【약어 목록】¹¹⁾

1	first person
2	second person
3	third person
ABL	ablative
ABS	absolutive
ACC	accusative
ANT	anterior
ASP	aspect auxiliary
AUX	auxiliary
CAUS	causative
COM	completive
COMP	complementizer
COND	conditional
CVB	converb
DAT	dative
DECL	declarative
DK	direct knowledge
EXCL	exclusive
f	feminine
FIRSTH	firsthand
GEN	genitive
IK	indirect knowledge
IMM.P	immediate past
IMP	imperative
INCL	inclusive
INFR	inferred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기본적으로 Max Planck Institute에서 제시한 Leipzig Glossing Rules (<http://www.eva.mpg.de/lingua/resources/glossing-rules.php>)를 따른다. 이 목록에 없는 용어는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Li (2000), Gorelova (2002) 등을 참고하였다. 만주어 이외의 언어들에 대한 주석 중 만주어에 없는 문법 표지는 해당 언어의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를 그대로 따랐다.

INTR	intransitive
IPFV	imperfective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NEG	negation, negative
NMLZ	nominalizer
NOM	nominative
NONFIRSTH	non-firsthand
OPT	optative
PASS	passive
PFV	perfective
PL	plural
POT	potential
PP	pragmatic particle
PRF	perfect
PST	past
PTCP	participle
PTL	particle
Q	question particle/marker
SG	singular
SIM	simultaneous
SS	same subject
-	형태소 경계
=	첨사 경계

원고 접수일: 2021년 1월 4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월 2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Characteristics of Manchu Particle *dere*
as an Inference Evidential Marker

Do, Jeongup*

This paper aims to present *dere* as an ‘inference’ evidential marker by verifying that the realization conditions of the particle *dere* representing conjecture in Manchu coincide with the properties of the ‘inference’ evidential marker in linguistic typology. The fact that *dere* mainly appears in sentences with second and third person subjects is same as the first person subject restriction in languages with indirect evidential markers. Particle *dere* also shows the ‘first person effect’ which is one of the properties of indirect evidential. In Korean, Chinese, Thai, and Turkish, when a conjecture marker is used with a first person subject, it can show the meaning of intention. When *dere* is used with the first person subject, it can also show the meaning of intention. In conclusion, I argue that *dere*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ference evidential marker because *dere* has the universal properties of indirect evidential markers, including inference evidentials.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